

# 日本石油産業의 國際化와 정책방향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이 글은 日本通産省 資源에너지庁의 자문기관인 石油審議會의 石油部  
會소위원회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중간보고서로서 日本 旬刊 「石油政  
策」誌(85. 9. 15자)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編輯者)

## I. 머리말

**本**小委員會는, 석유제품수입의 점진적 확대 등 국 제화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계전 체의 종합적인 구조개선대책의 추진을 제창한 1984년 6월 4일 석유심의회 석유부회 소위원회報告를 검토 하기 위해 금년 4월 이후 15회에 걸쳐 집중적, 정력적 으로 심의를 추진해 왔다. 본 작업은 금년 3월 30일의 제25회 석유심의회 석유부회(丹城寺次郎部회장)의 요청을 받고 실시되었다.

석유는 본래 안정공급의 여가 국민생활이나 경제활 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물자이다. 국내에 석 유자원이 없는 日本으로서는 원유 또는 석유제품 가운 데 어느 것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은 석유의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공급의 관점에서, 환언하면 국민 경제상 가장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 원 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해 제품으로 공급하는 방식, 다시 말해 消費地精製方式을 채용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현재에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것을 견지해 갈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는 또한 국제상품이다. 日本은 원유수요의 거의 全量を 해외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최대 의 원유수입국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日本의 석유 산업은 국제에너지시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日本 의 기간산업에 유력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년에 이르러 석유를 둘러싼

국내외의 諸정세는 세계적인 석유수급의 완화, 산유국 정유공장 가동 등에 따른 석유제품무역의 확대기조 정 착 등의 변화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日本의 석유산업은 앞으로도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담당할 주체로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석유제품 문제에 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수요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파잉설 비나 노후설비를 안고 있는 등 石油精製体制은 비효 율적으로 되어 있어 설비처리 등에 의한 구조개선을 진 행시켜 日本의 석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도 급 선무이다.

석유산업으로서는 이들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 로써 국제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보 다 강화해 가는 것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本小委員會로서는 이제까지의 석유정책에 대해 재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점에 서서 검토하여 앞으로의 석유제품수입문제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日本의 精製体制의 합리화를 중 심으로 하는 구조개선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제시하였 던 것이다.

이 보고를 받고 행정당국을 비롯한 석유산업 등에 있 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대책을 전개하여 국 제화에 대응한 석유안정공급 기반의 확립이 도모될 것 을 기대한다.

## II. 石油製品무역과 日本의 석유 산업

### 1. 日本의 석유제품수입과 현재까지의 방침

#### (1) 석유제품수입의 현황과 소비지정제방식

석유는 현대의 국제경제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국제정치, 전략에도 밀접히 관련되어 그 안정공급의 확보는 세계 각국의 기본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日本은 1차에너지의 대중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의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구나 주요산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석유의 안정공급확보의 요청이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은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의 관점에서 석유제품수입형태가 아니고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해 제품으로 공급하는 방식, 소위 소비지정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체계는 고도성장기에 있어서의 日本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국민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에너지의 저렴한 안정공급을 가능케 하고 더우기 2차에 걸친 석유위기시에는 民生用 油種에의 중점배분 등을 실현시키는 등 오늘날까지 日本의 에너지안전보장, 석유안정공급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輸入은 重油, 나프타, LPG의 세 유종에 대해 행해지고 있다. 重油는 내수의 1 할정도가 수입되고 있고 나프타는 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서 내수량의 약 6 할, LPG도 내수량의 약 7 할이 수입되고 있다.

이 결과 日本의 1984년의 석유제품수입량은 약 3,800만톤으로 美国(약 6,500만톤), 西独(약 4,400만톤)에 이어 세계 제3위이고 내수에 점하는 수입의 비율도 약 20%여서 歐美諸國과 별차가 없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中東으로부터의 수입이 많고 日本은 각 지역의 최대수입국이 되고 있다. 또한 유종별로 보면 日本은 나프타, LPG의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다. 더우기 歐洲諸國은 域內에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국제석유제품시장을 가지고 있어 域內去來가 많은 점, 美国은 실질적으로는 域內輸入에 다름없는 카리브해의 정유공장으로부터의 거래가 많다고 한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휘발유 등의 수입억제

그렇지만 日本은 전술한 소비지정제방식을 기본으로 한 석유의 안정공급정책의 방침에 따라, 특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석유제품 가운데 휘발유, 등유, 경유(이하 「휘발유 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수입되지 않게 돼 있다.

첫째로 석유제품 가운데서도 量, 價格이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나프타, 重油 등과 달리 휘발유 등의 무역규모는 적고 그 量과 가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수급 밸런스면에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석유제품은 연산품이기 때문에 가령 휘발유 등의 수입이 급증한 경우 그에 따라 국내 휘발유 등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면 다른 유종의 생산량의 감소도 초래돼 안정공급이 손상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휘발유 등은 나프타, 重油 등과 달리 수요자가 일반소비자이기 때문에 수입에 의한 공급불안정성이 수요자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점을 피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로 특히 휘발유수입이 억제돼 온 커다란 이유로서, 석유제품이 연산품이라는 특성을 가진 점에서 석유산업이 각종제품 전체의 판매수입에 의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日本의 경우 등유에 관해서 보면 대체연료와의 경쟁이 있는 외에 수요기의 안정공급을 확보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石油供給計劃에 의거, 수요기 전에 대량의 재고를 보유토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코스트는 등유판매로는 완전히 충당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다. 나프타, 重油 등에 관해서도 국제가격에의 연동, 대체에너지와의 경쟁 등의 이유로 충분한 판매수입이 얻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은 휘발유의 판매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태이다. 이와 같은 석유산업 존립기반에 급격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석유의 안정공급에 지장을 생기게 하는 것은 회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째로 휘발유 등은 소비생활에 밀착된 것이나 그 품질의 良否를 일반소비자가 구입시에 식별하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다. 더우기 그것을 이용하는 자동차 등은 高價의 것이다. 따라서 조약품이 수입되어 시장에 출회된 경우 소비자에게 심대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国内外 諸情勢의 변화

그렇지만 근년 석유제품수입을 둘러싼 국내외의 제정세는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들을 토대로 하여 석유제품수입방침을 중심으로 日本의 석유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① 국제석유수급의 완화

현재의 국제석유정세는 中長期的으로 보면 1990년대에는 수급이 팽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지만 현재는 완화기조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재는 석유제품 안정공급확보를 위한 요청에 대해 시장기능의 역할을 어느 정도 높임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국제석유제품무역의 확대

석유제품무역은 原油貿易에 비하면 여전히 소규모이지만 전체로서의 규모는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美国은 주로 中南美에서 휘발유 등을, EC는 域内去來를 중심으로 각 유종을 평균적으로, 日本은 주로 中東, 아시아로부터 重油, 나프타, LPG를 각각 수입하고 있고 각각의 수입량, 수입비율도 착실히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中東에서 합계 120万b/d의 능력인 수출용정유공장이 가동중인 점 등 세계전체의 무역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종별로는 경유 등의 중간유분의 수출여력은 수출국내수의 신장 등에 따라 감소될 것이나 휘발유, 나프타, 重油의 수출여력은 신장될 가능성이 있다.

### ③ IEA의 방향설정

석유제품무역확대를 토대로 하여, EC는 中東으로부터의 수출제품에 대해 소비국이 균형을 취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美国은 시장기능에 의해 석유제품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금년 7월 IEA 각료이사회에서는 진지한 토의결과 「공급의 안정보장에 유의하면서 시장기능을 기본으로 해 원활히 석유제품이 유통하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④ 국내정제설비의 高度化

석유위기 이후 소위 수요의 中·輕質化가 진행돼 왔

지만 이에 대응해 日本의 정유업도 중질유분해설비 등의 2차설비의 증강에 노력해 각 기업의 정제설비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변화, 해외의 공급변동에 대해서 각 제품수율을 변경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종래보다 용이하게 되어가고 있다.

### ⑤ 국내비축량의 증가

석유위기후, 긴급시 석유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석유비축이 증강되어, 아직 IEA가맹각국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기는 하나 민간비축 90일분은 달성되었고 국가비축의 증강도 진행되고 있다.

### ⑥ 市場메커니즘의 重視

1981년 12월 및 1984년 6월의 석유심의회 석유부회 소위원회의 報告書에 있어서도 석유산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석유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관여나 조정은 필요하지만 가능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취지의 지적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同소위원회보고나 이것을 토대로 한 금년 7월의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답신에서도 소요의 조건정비를 실시할 외에 점진적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의 지적이 행해지고 있다.

## 3. 現時點에서의 새로운 觀點

앞에서 말한 국내외의 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① 국제석유수급의 완화기조를 배경으로 한 시장기능활용의 가능성 증대, ② 국제석유제품무역의 확대에 의한 제품무역不安定性의 저하(특히 휘발유의 수출여력증대에 의한 공급불안정성의 저하), ③ IEA의 합의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 국제협조의 필요성, ④ 국내정제설비의 고도화에 따르는 각 정제기업의 제품 등의 수율 조정능력의 향상, ⑤ 국내비축량의 증가에 의한 긴급시 취약성의 약간의 개선에 의해 소비지정제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제화의 관점도 고려한 광범한 운용이 가능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의 重視의 관점에서도 그 방향이 기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휘발유 등의 수입억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

첫째로 만일 수출국의 수출에 문제가 생겨 휘발유등

의 수입에 지장이 생긴 경우이더라도 국내 각 석유회사의 정제설비고도화에 의해 제품 등의 수율조정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정제면에서의 조정에 의해 안정공급은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이에 따라 수입을 포함, 항상 변동하는 수급사정에도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휘발유 등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일반소비자인 점에서 공급자의 안정공급책무는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보다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도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석유회사의 판단하에 제품수입과 국내정제사의 탄력적 선택·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전술한 제품수입과 국내정제와의 탄력적 선택·조합을 가능케 하는 輸入의 환경조건이 정비된다면 휘발유수입이 실시됨에 따라 日本석유제품 가격체계의 급격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등유의 재고보유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이익이 확보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日本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할 하나의 계기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째로 品質確保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으로 추측되는 조약한 휘발유 유사품이 일부 유통되어 소비자로부터의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가령 휘발유 등을 수입하게 되면 똑같은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정제설비의 고도화에 의해 석유정제업의 품질조정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활용하여 석유정제업이 품질조정을 행하여 품질을 보증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품질확보가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4. 今後の 基本方向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품수입을 둘러싼 제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석유제품의 안정확보의 관점에 서서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의 日本의 제품수입방침을 재검토한 결과 금후의 기본적 방향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조화있는 製品輸入

석유 大소비국인 日本으로서는 석유제품무역 확대흐름을 근거로 하여 안정공급의 기본이 되는 소비지정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장기능을 존중하여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석유제품수입을 확대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2) 휘발유 등의 輸入開始

전술한 방침 아래, 지금까지의 정책에 따라 유달리 수입이 실시되지 않은 휘발유 등에 대해서도 시기를 잃지 않고 수입의 길을 열도록 해야 한다.

##### (3) 조건정비의 방향

휘발유 등의 수입개시에 즈음해서는 3절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의 석유제품 안정공급체제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투명성에 유의한 확실한 제도상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소정의 조건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제품수입과 국내정제와의 탄력적인 선택·조합에 의해 수급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등 안정공급을 도모할 수 있는 점, 소비자이익을 위한 충분한 품질조정능력을 가진 점, 긴급시를 대비한 비축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이 중요하고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주체에 의한 수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상에 의해, 이제까지 수입이 안되었던 휘발유 등의 수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4) 원활한 제품수입을 위한 관련조치

더우기 (3)에서 본 직접적인 조건정비에 부가해 원활한 제품수입확대를 위해서는 이하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 ① 등유在庫義務量의 감축

제품수입이 국내가격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당면의 조치로서 현재 수요기前에 석유회사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등유의 대량재고에 대하여, 수급핍박시에 있어서는 국내정제설비의 고도화에 의해 등유의 증산이 가능케 된 것 등을 토대로 앞으로도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수준에 대하여는 소비자에의 안정공급확보를 심분 배려하면서 어느 정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② 수출의 彈力化

日本の 석유산업이 명실공히 국제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래 일부의 受託精製 이외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품수출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안정공급에 유의하면서 현행 수출관리제도의 운용의 탄력화를 도모하여 그 원활화를 기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5) 가일층의 國際化와 구조개선의 추진

日本석유산업이 현재의 석유수급완화를 직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국제화의 흐름에 대응해 자율적인 발전을 목표로 해 가기 위해서는 日本 석유제품가격체제의 가일층의 국제화를 염두에 두면서 元壳집약화, 파잉설비처리 등의 정제체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또한 석유제품의 수요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에 의해 구조개선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Ⅲ. 석유산업의 構造改善의 推進

#### 1. 세계적인 設備過剩

석유위기를 계기로 하여 세계적으로 석유제품수요는 저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의 신장이 예상되기는 하나 선진제국의 수요는 계속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전체의 석유제품수요는 보합세 혹은 微增정도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석유위기 이전에 장래의 수요증가를 전제로 정제능력의 증대를 도모했던 歐美諸國의 석유회사는, 이 때문에 근년에 이르러 석유정제 설비능력의 과잉, 가동률의 대폭적인 저하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가운데 정유공장의 폐쇄를 포함한 설비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비처리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선의 추진은 금년 7월 9일 개최된 IEA 각료이사회에서도 합의되었으며 각국 공통의 과제가 되어 있다.

#### 2. 석유산업의 集約化와 精製体制의 合理化

이러한 세계적 구조변화 가운데 日本석유산업도 수요의 中·輕質化에 대응한 설비구조의 고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1983년에 약 100만b/d의 설비처리를 실시했던 것이다. 이 경우는 수요량의 격감에 따른 대응

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설비의 休止, 일부능력의 감축이 많고 정유공장폐쇄 및 그에 따르는 효율적 정유공장에 있어서의 集中生産이라고 하는 대담한 조치는 강구되지 않았다.

더우기 그 후 석유제품수요가 더욱 더 부진함에 따라 가동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설비처리가 더욱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

한편 日本석유산업은 物流·販賣의 합리화의 관점에서 元壳集約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작년부터 昭和石油, 설石油의 합병, 기타 元壳企業의 업무제휴 등에 의해 12元壳 7그룹체제로의 集約化가 돼 있는데 더욱 금년 8월에 大協石油, 丸善石油가 합병에 합의하였고 다른 元壳企業·정제기업에 있어서도 이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보다 가일층의 집약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설비처리에 있어서는, 最適操業의 單位는 각 정유회사의 범위내로 그쳤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元壳집약화의 진전에 의해 중래의 개개회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이 집약화된 元壳그룹별로 정유공장의 효율화 또는 효율적 정유공장의 집중생산의 잇점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日本 석유회사로서도 이러한 집약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시점이야말로 설비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제체제의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精製体制 합리화의 意義

##### (1) 日本의 정제체제 현황

日本의 원유처리능력(상업중류장치능력)은 1983년에 594만b/d에서 497만b/d로 축소되었으나 그후의 수요 침체로 원유처리규모는 약 330만b/d 정도로 여전히 가동률은 60% 정도로 낮아 상업중류장치능력의 과잉상태는 보다 심각하다.

또한 日本의 정제체제는 中小규모의 정유공장이 많이 있는 점, 건설후 상당한 헛수를 경과한 노후정유공장이 존재하고 있는 점, 2차설비를 가지지 않은 정유공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점, 정유공장이 지역적으로 편재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非效率의로 되어 있다.

##### (2) 精製合理化의 意義

이러한 과잉설비, 비효율적인 정제체제상황을 방지하

는 경우에는 日本석유산업의 경영기반은 더욱 악화함과 동시에 고용면에서도 악영향을 초래, 결과적으로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석유의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지장을 생기게 한다.

또한 日本경제전체로서 본 경우 대폭적인 과잉설비 및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의 존재는 日本의 물적, 인적자원의 배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설비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은 전술한 국민경제상의 意義에다가 중장기적으로는 개개의 석유회사 또는 석유산업전체의 체질강화라고 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유공장의 폐쇄, 설비폐기를 하게 될 때는 일시적으로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회사에 대하여 추가 손실의 발생, 설비폐기비용 등 많은 경비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조세공과 등의 고정비 삭감이 가능함과 아울러 비효율적인 中小·노후설비에 의한 생산에서 대형·신설설비에 의한 집중생산으로 변경함으로써 變動費를 절감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정제코스트 절감에 기여한다. 제품코스트에 차지하는 정제코스트의 비율은 原油代에 비하여 적기는 하지만 절대액은 크고 또한 原油代와 달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合理化가 가능한 것에 심분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술한 과잉설비의 존재는 잠재적 증산압력을 증가시켜 과당경쟁체질을 조장시켜 市況저조의 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앞으로 수급을 적정화하여 市況을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시장기능을 더욱 더 활용키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과잉설비상황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 4. 設備處理의 추진방법

현재 日本에서 어느 정도의 상암증류장치능력이 과잉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근년의 동결기의 피크 원유처리량을 기초로 긴급시에 대비하여 과잉설비량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금후의 중장기적 석유제품수요동향, 가동률을 높였을 경우의 運轉가능성, 일시적인 수요증가에 대한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제품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확보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70~100wb/d정도의 과잉설비가 존재하게 되고

그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1983년의 설비처리와 합산하면 석유위기 이후 30% 정도의 원유처리능력의 삭감을 실시한 것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3년도에는 처리목표량인 100wb/d를 거의 달성하여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으나 그 처리형태는 정유공장 폐쇄를 수반한 것은 없고 설비능력 일부 감축에 의한 것이 많아 양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에 중점이 두어져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설비처리에서는 이러한 지난번의 설비처리 평가를 토대로 석유산업의 체질강화에의 기여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방침하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① 自主性的의 존중

각 기업, 각 기업그룹은 석유산업 체질강화에 의한 석유의 안정공급확보, 효율적 자원배분에 필요한 설비처리량으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비처리를 실시한다. 원래 정유공장을 폐쇄할 것인가의 여부 등 처리형태에 대해서는 경영의 기간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와의 관계도 충분히 파악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의 설비처리량은 각 기업, 각 기업그룹이 자주적으로 판단, 결정할 일이다.

#### ② 정유공장의 폐쇄, 설비단위의 폐기추진

설비처리의 형태로는 정유공장폐쇄, 설비단위의 폐기 또는 休止, 설비능력의 일부 감축이 있지만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集約化의 가일층의 추진에 기여하고 정제코스트 절감효과가 큰 비효율적인 정유공장폐쇄, 설비단위의 폐기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③ 고용대책, 지역경제대책 등의 배려

정유공장폐쇄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 지방공공단체의 세수감소, 관련하청기업에 대한 발주감소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설비처리를 실시하는 기업, 기업그룹뿐만 아니고 정부로서도 충격완화에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 ④ 설비처리의 신속한 실시

설비처리의 기간은 처리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석유산업의 체질강화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하는 것

이 필요하고 이번 설비처리는 1986년도부터 3년간을 목표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 ⑤ 지원조치의 실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비처리가 원활히 진행되고 또한 처리형태도 정유공장의 폐쇄, 설비단위의 폐기가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후술하는 5節을 근거로,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5. 설비처리에 따른 問題點 및 政府의 支援

석유회사가 설비처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공사비, 설비이전에 따른 비용 등 일시적으로 경비부담이 증대하는 외에도 적절한 고용대책의 추진,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배려에 관한 과제가 있다. 歐美제국은 고용관행이 日本과 다른 점 외에도 국제석유자본이 개발부문에서 유통부문까지 보유하고 있어 정제부문에서도 다수의 정유공장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도 있어 정유공장폐쇄를 포함한 설비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면이 있다. 歐美제국과 다른 사회환경에 처해 국제석유자본과 기업체질이 다른 日本의 석유회사로서 경영상황이 극히 악화하고 있는 현재, 다액의 일시적 경비부담 및 기타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회사의 독자적 노력에만 맡기는 경우에는 설비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처리형태도 설비의 休止, 능력의 일부감축이 중심이 될 것도 예상되어 全体로서의 합리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과 동시에 종업원대책, 지역경제에의 영향완화책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석유산업은 日本 1차에너지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유의 안정공급이라고 하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파잉설비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日本은 석탄정책에 이바지하는 관점에서 수십년동안 原重油관세를, 또한 현재는 더욱 석유의존도를 감축하는 관점에서 석유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다른 에너지의 석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石油稅收는 대체에너지정책의 추진재원이 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석유소비의 억제효과로도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파잉설비문제는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가속되었던 것이며 일반적인 파잉설비문제와 동일하게 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정부는 석유제품의 안정공급확보의 관점에서 석유업법에 의해 매년 책정하는 석유공급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석유제품공급량, 필요설비량을 제시하고 있는 외에 의해 설비의 신·증설허가를 행하고 있다. 현재의 정제설비는 이러한 행정에 기하여 허가,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공급책임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석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원활한 설비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고 또한 고용문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유공장 폐쇄, 설비단위의 폐기에 대해서는 기업부담의 경감, 적절한 고용대책의 추진,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유공장부지의 유효이용 등의 관점에서 설비이전, 퇴직금, 부지이용사업에 대한 지원, 기존의 고용안정조치의 활용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6. 技術開發에의 도전

석유산업이 체질강화를 도모해 국내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여 안정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元壳集約化나 그것과 밀접히 관계된 설비처리를 중심으로 한 精製体制의 합리화를 추진해 가는 외에도 장기적인 전망에 선 기술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日本의 석유산업의 기술개발에 관계된 현황을 보면 2차설비의 개발 등 생산프로세스에 관한 기술개발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합에너지와의 경쟁, 사업분야의 확대와 같은 산업체질강화의 관점에서 기술개발은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의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의 진전하에서 日本석유산업도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특히 단·중기적으로 수급이 완화하는 가운데 수요개척에 이바지할 기술개발(分解輕油의 열병합발전시스템의 활용기술, 나프타의 연료전지에의 이용기술, 등유 등의 난방용이용에의 크린연료기술), 석유화학을 포함한 콤비나트 전체의 고도화, 효율화에 이바지할 기술개발(未利用오프가스의 유효이용 등) 및 석유제품의 고품질화기술개발(초저유황화 촉매의 개발 등)을 중심으로 석유산업이 고부가가치·고효율형산업으로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가는 것이 강력히 요망된다.

석유산업으로서 이러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자동차연료용 메탄올 등 석유관련사업에의 진출을 포함한 사업분야의 확대, 고도정보화사회移行에 대응할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조속히 검토하는 등 기술혁신, 정보화진전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절한 대응이 요망되는 것이다.

#### IV. 結語(석유산업의活性化에 대하여)

日本の 석유산업은 종래부터 원유거래, 기술도입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대로 산유국의 석유경제체제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國際化의 물결에 직면하여 장기적인 견지에서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요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설비의 과잉상황이 한층 더 심각해져 元壳集約化와 함께 강력히 설비처리를 진행시켜 경제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수요감퇴와 기업간의 판로확대경쟁 등을 배경으로 한 市況침체는 국내 각 석유회사에서 근년 드물게 보는 대폭적인 적자를 내기에 이르러 경영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압박받고 있다.

석유산업은 이와 같이 미중유의 난국에 직면해 있고 소비생활이나 산업활동에 불가결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담당해 가면서 이들 과제에 대처, 극복해 갈 것이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석유산업 스스로가 보다 장기적이고도 국제적 시야에 섬과 동시에 日本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가는 것이 긴요하다.

日本の 석유산업은 歐美석유자본에 비하여 집약화나 경제체제 합리화의 지연을 비롯하여 기술개발이나 사업분야의 확대에 대한 노력도 여전히 부진하고 더우기 석유경제·元壳기업이 상류의 개발부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앞으로 日本석유산업은 이러한 현실을 심분 인식하여 이미 말한 元壳집약화, 경제체제의 합리화, 기술개발의 추진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개발부문의 적극적 사업진개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전개를 도모하면서 구조개선을 진행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기술개발이나 경제체제

의 합리화대책 등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민간활력의 발휘, 특히 석유산업의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도 요구된다.

더우기 지금까지 설명한 元壳집약화나 경제체제의 합리화, 기술개발 등의 구조개선에 밀접불가분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流通部門, 특히 최종판매단계에서의 합리화 필요성이다. 특히 元壳회사의 판로확장지향 등을 배경으로 한 판매단계의 과당경쟁은 시황침체요인이 되어 日本석유산업 전체의 경영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활성화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증장기적으로는 석유산업의 취약화에 따라 안정공급에 지장을 초래,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각 석유회사경영자의 자각이 기대됨과 동시에 강력하고도 신속한 시황개선책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日本석유산업의 역사는 19세기말의 근대산업으로서 탄생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1세기가 되었다. 그동안 日本석유산업정책의 과제는 시대와 함께 변천하는 국내의 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경제상 가장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同정책이 기본으로 하는 이념은 국제정치상품, 제품비차별성 등 석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하면서 시장기능의 활용을 중심으로 석유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이익의 증대를 도모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선진산업 국가로서 日本에 부과된 책무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고 석유산업정책으로서의 과제는 많다. 그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석유제품무역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도 석유산업이 국제에너지시장과의 새로운 관계속에서 강력한 국제자원산업으로 점진적 변혁을 이루어가야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정비하여 지원해 가는 것이 오늘날 석유정책에 부과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를 둘러싼 문제는 이외에 석유제품가격체제의 방향, 석유산업의 종합에너지산업으로의 발전방도,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방향 등 극히 광범위하다.

本委員會의 심의도 테마를 좁혀 집중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점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국제적인 에너지문제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위치설정이나 장기적·단기적인 국내외의 석유 정세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품수입 문제나 설비치리를 비롯한 구조개선 등 두가지 기본정책의 전개에 대해 검토함이 중요하다.

앞으로 조속히 이들 기본문제를 토대로 한 石油産業의 장기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행해질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석유산업이 현재 안고 있는 과제를 극복

하고 한층 더 발전적인 길을 개척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수다한 난국을 피하는 노력으로 극복해 온 것처럼 석유산업 자신의 끊임없는 自主노력을 요청함과 아울러 關係산업계, 노동계, 금융계를 포함한 關係자의 협력을 간절히 기대한다.

또한 政府로서도 關係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 갈 것을 강력히 요망하는 바이다.\*

□ 焦點 □

## 제75차 OPEC 總會 성과없이 끝나 할당량·油價체제 차기총회로 넘겨

제75차 OPEC (石油輸出國機構) 임시총회가 지난 10월 3, 4일 이틀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열렸으나, 회원국들간의 산유 할당량 배정등 이해가 엇갈려 난항만을 거듭한 끝에 의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국들간의 심한 의견상충으로 산유할당량 재조정 문제와 油價체제 문제를 오는 12월 7일의 제네바 정기총회로 넘기기로 결의했으며, 油價하락 저지를 위한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OPEC 총회는 또 앞으로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油價가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 유가 인하문제는 접어둔 채 회원국별 산유량 재조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특히 석유수입 격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에콰도르, 이라크, 카타르 등의 할당량 증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나, 공급과잉상태를 빚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회원국의 할당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의 산유량은 축소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할당량을 그대로 둔채 현재의 전체 產油 실링인 하루 1천600만배럴을 일단 고수키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유할당량 조정문제가 다음 총회로 미루어지자 할당량 증대를 요구했던 에콰도르가 이에 반발, OPEC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OPEC 붕괴설로까지 과급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페르디난드 산토스 알비테 에콰도르 석유성 차관은 산유할당량 증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잠정적으로 OPEC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하고, 에콰도르는 할당량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의 할당량인 하루 18만3천배럴보다 훨씬 많은 27만3천배럴을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OPEC 총회의 폐막 공동성명은 아래와 같다.

### 共同聲明(全文)

제75차 OPEC臨時總會가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렸다. 총회는 인도네시아 鑛物에너지相이며 同國 대표단 단장인 Subroto 박사를 의장으로, 교체의장에는 알제리 에너지産業相이며 同國 대표단 단장인 Nabi 박사를 만장일치로 각각 再選出했다. 총회는 업저버로 참석한 멕시코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同國이 OPEC와 결속하고 OPEC를 지지하는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총회는 또한 최근 일련의 地震으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멕시코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했다. 총회는 일부 회원국들이 요구한 OPEC 총생산의 재할당 및 국별생산 쿼터문제를 토의했으나, OPEC 생산상한선을 현행 1,600萬b/d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OPEC 대다수 회원국들은 生産쿼터再割當 문제를 차기 총회로 연기했다. 총회는 또한 UAE 대표이며 同國의 石油 鑛物相인 Otaiba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市長監視委員會의 지난 총회 이후 石油市況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同 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총회는 또 사우디의 石油相이며 同國 대표인 Yamani 氏가 의장으로 되어 있는 實務委員會(MEC)의 보고서도 검토하고 同 위원회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총회는 오스트리아정부와 비엔나에서 보여준 친절과 회의진행을 위한 훌륭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